

김용남, 조국 겨냥 "범죄자에 '알리지성 반감' 있어"...조국혁신당 "참 정치검찰스럽다"

등록 2026.05.08 19:58:29 | 수정 2026.05.08 20:34:24



[서울=뉴스시스] 조성봉 기자 =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를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'새로운 평택 시을 3대비전'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2026.05.06. suncho21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한재혁 기자 =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"범죄자들에 대한 알리지성 반감이 있다"고 했다. 이같은 발언에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를 향해 "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대적으로 사용했던 프레임"이라고 했다.

김 후보는 8일 유튜브 '오마이TV'에 출연해 '(조 대표와의) 단일화는 어려운가'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"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고 있으면 저는 그다지 상대하고 싶지 않다"고 말했다.

이에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"범죄자 프레임은 2022년 대선 당시,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대적으로 사용했던 프레임"이라고 했다.

백 원내대변인은 "김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 후보에 대해 범죄자라며 맹공을 퍼붓던 행동을 이번 재선거에서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

정춘생 조국혁신당도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"김 후보, 참 정치검찰스럽다"며 "민주당 당원이 김 후보를 부끄러워 하실까봐 걱정이 정도"라고 적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